



교보문고 광화문점 2022

2022년 연간 도서판매 동향 및 베스트셀러 분석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4일 (교보문고 판매 기준)


KYOBO 교보문고

<키워드> '낭중지추(囊中之錐)'

2022년 우리나라 도서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요약할 수 있는 올해의 키워드로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사자성어를 선정했다.

낭중지추(囊中之錐)는 '주머니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주머니 속에 있더라도 송곳의 뾰족함을 감출 수 없듯이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알려진다는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의 키워드를 [낭중지추]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1)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K-콘텐츠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우리나라 작가들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故 이어령 선생님이 오래전 '한국이 세계 문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립서비스로 받아들였지 실제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얼마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개막식에서 우리나라 가수인 BTS 정국이 주제가를 부를 정도로 K-Pop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징어 게임'은 글로벌 OTT 시청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었고, 아카데미상과 에미상에서 우리나라 배우가 수상했다는 소식도 연이어 들려올만큼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한국문학도 K-Pop, K-드라마/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뜨거워 보이지만 우리나라 작가들의 작품을 향한 세계인들의 시선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안데르센상(일러스트레이터 부문)을 수상했고, 정보라 작가와 박상영 작가는 노벨상, 공쿠르상과 함께 세계3대 문학상으로 불리는 맨부커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2016년 한강 작가가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했고, 조남주 작가와 손원평 작가의 작품은 이웃 일본에서 한국문학의 붐을 일으키고 있고, 백희나 작가는 2020년에 아동문학의 권위있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 속에서 올해 이수지 작가의 수상소식 등이 반가운 이유는 한국문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단순히 한 때의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더 뜨거워지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囊中之錐

2) '좋은 이야기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올해 베스트셀러 1위인 <불편한 편의점>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점이다.

최근 <불편한 편의점>은 1권과 2권을 합쳐 출판계에서 성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밀리언 셀러(백만부)에 올랐다.



<달리구트 꿈 백화점(전체 2권)>과 <아몬드>에 이어서 한국소설로는 2020년대 들어 세 번째로 백만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불편한 편의점>의 이러한 성공이 반가운 이유는 셸럽의 추천도서로 소개되거나, 시장에서 검증된 작가의 명성을 이용한 마케팅 등 기존의 베스트셀러 성공법칙을 벗어나 콘텐츠 자체의 힘으로 일궈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불편한 편의점>의 성공사례는 마치 변화구 투수들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오랜만에 '짤'하고 등장한 정통파 강속구 투수의 출현을 보는 것과 같은 짜릿함을 느끼게 한다.

좋은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읽어줄 독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서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상황에서 어두운 바다에 비춰진 작은 빛줄기 같은 희망을 던져준다.

2022년 우리나라 도서시장을 돌아보며 그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 작가들의 저력이 세계무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좋은 이야기는 결국 우리 독자들이 알아서 찾아봐 주고 사랑해준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 키워드는 [낭중지추(囊中之錐)]로 선정하였다.

<2022년 연간 베스트셀러 분야별 동향>

[소설]



위로의 공간에서 얻는 힐링 메시지



[에세이]



나와 모두에게 건네는 응원과 위로

편의점, 백화점, 서점 등 공간을 무대로 한 소설이 인기를 끌었다. 이 책들은 공통적으로 따뜻한 일러스트를 표지에 담아 독자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장소에서 대한 마음의 위안을 찾고자 한 독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보라의 <저주토끼>가 맨부커상 후보에 오르면서 관심을 얻었고, <파친코>의 드라마화로 세계적인 관심을 얻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출판계를 관통한 해였다.

한국소설은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이 책은 1권, 2권 합쳐 100만부 판매를 돌파하며 새로운 밀리언 셀러로 등극했다. <불편한 편의점>과 함께 <달려구트 꿈 백화점>,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 '공간'을 무대로 한 힐링 소설이 꾸준히 사랑받았다. 스타 작가의 신작으로는 김훈의 <하얼빈>과 김영하의 <작별인사>가 눈에 띄며, 명사 추천에 힘입은 <아버지의 해방일지>의 상승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외국소설은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파친코>다. 2018년 첫 출간되었을 때보다 OTT 드라마를 통해 독자의 관심이 높아져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부상했다. 2021년의 신데렐라였던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의 인기가 올해도 지속되었다. 그 외 고전문학과 스테디셀러 위주로 베스트셀러 순위가 형성되었으며, 기존의 대형 작가나 새로운 스타 작가의 책은 눈에 띄지 않았던 한 해였다.

에세이 분야에서는 따뜻한 감성으로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에세이가 꾸준히 사랑을 받았다.

해외 에세이 중에서는 김영하 작가의 북클럽에 선정된 <H마트에서 울다>가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제면에서는 MBTI 테스트가 인기를 끌면서 각 유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에세이가 여럿 출간되었다. <나의 MBTI가 궁금하단 마리몽>은 MBTI 결과에 귀여운 캐릭터를 연결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시]



익숙함 속에
더 빛나는 새로움

시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여전히 베스트셀러를 차지했다.

넠리 사랑받아온 나태주 시인과 탄탄한 팬층을 보유한 류시화 시인, 국민시인 윤동주, 김수영 시인의 작품이 꾸준히 인기를 얻었다. 김수영 시인의 시집 <디 에센셜:김수영>은 교보문고 단독 상품으로 제작되어 높은 판매를 기록했다. 최근 광화문글판에 소개된 진은영 시인이 올해 출간한 시집 <나는 오래된 거리처럼 너를 사랑하고>가 단숨에 관심을 끌며 분야 6위에 올랐다.

[가정생활]



우리 아이를 위한
부모의 말 공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엄마의 말 연습>, <엄마의 말하기 연습> 등 '말'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책 제목이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다.

양육을 하면서 쉽게 말했던 언어에 대해 다시 일깨우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소통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했던 부모들의 마음이 엿보였다. 또, 오은영 작가가 출연하는 TV양육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그대로 나타났다. <본질육아>, <놓아주는 엄마 주도하는 아이>와 같이 육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자기주도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을 담은 책들이 큰 사랑을 받았다.

[유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

올해 그림책 시장에서 가장 화제를 모은 것은 단연 이수지 작가의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수상이다.

이수지의 <여름이 온다>가 '역주행' 베스트셀러로 떠오르며 분야 1위에 올랐다. 지난 2020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백희나 작가가 6월 미국 보스턴 글로브 혼북 명예상을 수상하며,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은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올해 출간된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이 시리즈물이다. 인기 캐릭터 '캐치 티니핑'과 국내 작가들의 탄탄한 그림책 세계관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동/아동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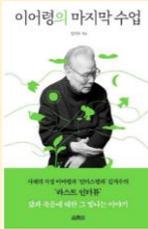


교양학습만화와
포켓몬스터 열풍

2022년은 '포켓몬스터'의 열풍이 어린이 도서시장에도 강한 영향력을 보인 한 해였다.

<포켓몬스터 썬&문 포켓몬 전국대도감>이 어린이 분야 1위에 등극했고, 포켓몬스터 캐릭터 설명도감이나 만화 등 포켓몬스터 관련도서 다수가 순위에 올랐다. 동화책은 교보문고에서 단독 리커버를 진행했던 <긴긴밤>이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았다. 퀴즈와 수수께끼 형식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교양학습도서 다수가 순위에 진입했고, <흔한남매>,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에그박사>, <Go Go 카카오프렌즈>등 인기 학습만화의 인기도 꾸준히 이어졌다.

[인문]



시대의 지성이 남긴 것

시대의 지성으로 많은 지혜를 일깨워준 **故 이어령 선생의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 분야 1위를 차지했고, 마지막 미공개 육필원고를 엮어낸 **<눈물 한 방울>**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오십에 읽는 논어>, <마흔에 읽는 니체>와 같이 특정 연령대 독자를 대상으로 한 도서도 여럿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더불어 동서양 철학으로 인생의 교훈을 찾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정리한 지성인들의 인생론을 통해 스스로 삶을 성찰하려는 독자들의 마음이 엿보였다. 한편 <클루지>의 경우 2008년에 출간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유튜버 자칭의 추천을 통해 급부상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경영]



제테크 실망의 해.
2023 생존이 과제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돈의 속성>, <부의 추월차선> 등 스테디셀러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새로운 재테크 비법을 제시하는 도서보다는 오랫동안 검증된 기초 투자서 판매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올해는 대선 이후에 재건축과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수업: 기초편>이 분야 5위에 오르기도 했지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겹쳐 도서 판매에도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가 예견되자 재테크 신간의 판매가 줄었다.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같이 경제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책이 관심을 얻었고, 살아남기를 위한 태세로 변화했다.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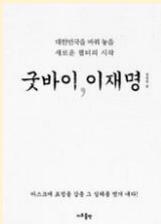


클래식으로 돌아간
성공 비결

자기계발 분야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은 성공담과 함께 **고전 자기계발서가 재유행했다.**

'라이프해커' 자칭의 <역행자>, 켈리 최의 부 실천법 <웰싱킹>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데일 카네기의 강의를 집대성한 <인간관계론>, <자기관리론>이 나란히 상위권에 들었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찾으라는 <원씽>, 끝까지 해내는 끈기에 대한 <그릿>, 소원을 이루는 법칙에 대한 <시크릿> 등 스테디셀러들이 유튜버 및 강사들에 의해 소개되어 올해 새롭게 독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정치사회]



국내외를 흔든
정치 지형 변동

올해 가장 큰 국내 이슈였던 대선과 관련하여 <굿바이 이재명>, <윤석열 X파일> 등 **정치권 인사와 관련된 책들이 큰 주목을 받았다.**

대선 이후로는 전, 현직 대통령 추천 도서로 선정된 <지정학의 힘>, <선택할 자유> 등 이슈 정치인들의 영향력에 따른 판매가 꾸준히 이어졌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지정학,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지리의 힘1,2> 등 관련 도서의 구매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역사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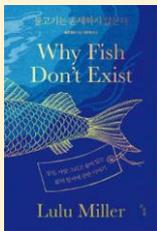


역사를 쉽고 재미있는
경험한다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는 역사 분야 스테디셀러이면서도 분야 순위 1위를 놓치지 않고 사랑을 받고 있다.

TV교양예능프로그램 방영으로 <벌거벗은 세계사>, <벌거벗은 한국사> 등 입문 역사 시리즈 도서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는데, 방송과 함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또한 5년 만에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서울편>시리즈가 완간되면서 오랜 애독자를 다시 불러 모았다. 그 밖에도 <우크라이나 역사>를 비롯해 전쟁사 분야 도서들이 러-우 전쟁 이슈와 함께 눈길을 끌었다.

[과학]



따뜻하고 말랑한 과학에세이

차갑고 이성적이라고 여겨지던 과학 분야에서 올해는 따뜻함과 다정함을 찾을 수 있었다.

롤루 밀러의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분야 1위는 물론 종합 9위까지 오르며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는 과학 에세이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다정함'을 키워드로 사랑을 받았던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 이어 <다정함의 과학>, <프렌즈> 등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과학책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외 수학, AI, 물리학 등 주요 과학 주제에 대한 도서가 골고루 상위권에 올랐고, 다누리호 발사 등의 소식으로 우주 관련 도서도 눈길을 끌었다.

[예술]



대본/각본집으로 작품 분석
에서 소장까지!

영화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하고, N차 관람객을 이끌며 마니아 독자층을 이끌어 각본집에도 영향을 끼쳤다.

<헤어질 결심 각본>이 분야 1위에 올랐고, 드라마 <그 해 우리는>, <나의 아저씨>등 대본집이 큰 사랑을 받았다. 촬영 비하인드 내용과 삭제된 장면과 대사까지 드라마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집을 찾는 독자들이 늘었다. <이건희 컬렉션>과 같은 전시 연계 도서의 판매도 높았다. MZ세대의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세계 3대 아트페어인 프리즈가 서울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아트컬렉팅, 아트테크에 대한 도서들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종교]



널리 전하는 믿음과 말씀

기독교 도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가나안에 거하다> 등 묵상, 신앙생활 도서가 꾸준히 선물용으로 구매되며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어웨이크> 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저자들의 도서가 인기를 끌었다. 그 외 스테디셀러인 C.S.루이스, 팀 켈러 저자의 도서들도 역시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으며, 불교 도서 중에서는 법륜스님의 신간 <반야심경 강의>와 함께 기존 도서인 <스님의 주례사>, <법륜스님의 행복>이 주목을 받았다.

II. 2022년 연간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

[건강]



명이가 알려주는
건강서 강세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 시간이 길어져 척추나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게 되면서 운동요법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재활의학 전문의 정선근이 tvN 유퀴즈, EBS 명의에 출연하며 저서 백년 시리즈 <백년허리1: 진단편>, <백년허리2: 치료편>, <백년 목>, <백년운동>이 주목받았다. 스포츠의학 국내 재활 치료계에서 유명한 홍정기의 <운동 말고 움직임 리셋>은 운동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생활습관 변화를 일깨워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다이어트 유튜버로 활동하는 최겸 작가의 <다이어트 사이언스>가 순위에 오르며 유명 저자의 파워를 보여주었다.

[요리]



두 갈래로 갈린 집밥 트렌드,
프리미엄 VS 가성비

집밥하면 떠오르던 간단한 레시피 도서 중심에서 <세계질 맛있는 솔밥 보양식>, <김밀란 파스타>, <집에서 외식>과 같이 집에서든 근사하게 외식 메뉴를 즐길 수 있는 요리 레시피가 각광을 받았다.

이렇듯 화려한 집밥 요리책이 인기 가도를 달리다가 치솟는 식탁 물가가 반영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만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 <하루 5,000원 집밥 만능 레시피북> 등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요리책들이 서서히 베스트셀러 순위권에 들기 시작했다.

[취미/스포츠]



새로운 놀이북의 출현

혼자 여가시간을 즐기는 방법으로 놀이북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컨셉의 놀이북 개발이 이어졌다.

<당신은 사건 현장에 있습니다>가 분야 1위에 오르며 여럿이 보드게임을 하는 듯 혼자 추리를 하는 놀이북이 인기를 거뒀다. 그 외에도 <어른을 위한 두뇌 놀이책> 등 손으로 직접 쓰거나 만들면서 퍼즐이나 단어 연상으로 두뇌 운동을 하게 하는 책이 관심을 받았다. <소위니놀이터의 띠부띠부 직업놀이>, <스프링북 스토쿠> 등 놀이북들이 상위권에 나란히 올랐다.

[여행]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꿈틀꿈틀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여행 분야가 올해는 꿈틀대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해제와 실외 마스크 해제로 국내여행 수요가 높아졌다.

<에이든 국내여행 가이드북>, <리얼 국내여행> 등 국내여행 가이드북의 판매량이 높았다. 하늘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리 준비하는 독자들도 늘어났다.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와 해외에서도 격리가 완화되면서 하반기에는 해외여행 가이드북의 개정판이 나왔으며, 이를 찾는 독자들이 늘었다. <리얼 하와이>, <디스 이즈 파리> 등 해외여행 가이드북까지 판매량이 늘고 있다.

II. 2022년 연간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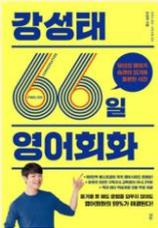


애니메이션발 일본 원작
만화의 강세

애니메이션과 극장판 이슈가 이어졌던 <귀멸의 칼날>, <주술회전>은 전년도에 이어 꾸준히 베스트셀러로 군림하였다.

뒤이어 <스파이 패밀리>, <체인소 맨>, <도쿄 리벤저스> 등이 올해 애니메이션으로 화제를 이어가면서 원작 만화 역시 베스트셀러로서 입지를 굳혔다. 애니메이션발 일본 만화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SNS에서 화제가 되며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은 작품도 눈에 띄었다. 그로 인해 와야마 야마의 <여학교의 별>, <가라오케 가자>, <빠졌어, 너에게> 등 다양한 작품이 순위에 올랐다.

[외국어/토익토플]



혼자 공부하며 갓생 살기

매년 새해 결심으로 '영어 공부'를 손꼽는 이들의 동기 부여를 제대로 저격한 '공신' 강성태의 <강성태 66일 영어회화>가 분야 2위에 올랐다.

또한 스토리가 가미된 콘텐츠로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거의 모든 행동 표현의 영어>, <영어독립 365>가 '혼공' 학습서 시장을 이끌었다. 반면 지속되는 신규 채용 시장의 불확실성과 '시들해진 공무원 선호' 현상은 이른바 '취업 스펙'으로서의 토익/토플 수험서 판매량의 감소와 시장 축소로 이어졌다.

[기술/컴퓨터]



다시 돌아온 엑셀과
IT입문서 주도

IT출판 시장은 기본기를 다지는 입문서 시장이 주도했다.

출판사별 주요 시리즈가 자리매김하면서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나 'Do it' 시리즈의 인기가 계속되었다. 특이한 점은 줄곧 내리막이던 엑셀 활용서 시장에서 유니콘이 출현했다. 유튜버 '오빠두'의 <진짜 쓰는 실무 엑셀>은 출간부터 현재까지 기염을 토하며 분야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한 개발자 독자들에게는 <클린코드>나 <리팩터링>, <프로그래머의 뇌>같이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스테디셀러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다.

[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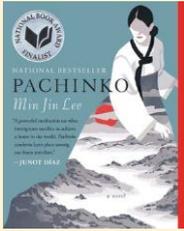
검증된 작가와 작품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

청소년 분야는 다양한 기관과 많은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검증되며 권장·추천 도서로서 자리 잡은 작품들 중심으로 부동의 베스트셀러 순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이꽃님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죽이고 싶은 아이>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시간을 파는 상점>, <위저드 베이커리>, <식탁 위의 세계사> 등 리커버를 통해 새롭게 독자들을 찾아온 작품도 다시 관심을 얻었다. <가짜 모범생>, <구미호 식당 3: 약속 식당>, <붉은 무늬 상자> 등과 같이 청소년 분야에서 애독자층이 있는 작가의 신간이 출간되자마자 독자들과의 큰 호응을 얻었다.

II. 2022년 연간 베스트셀러 동향 분석

[양서]



세계에서 주목하는 K콘텐츠,
한국문학의 매력

[일서]



꺼지지 않는 콘텐츠 강국,
일본의 저력

[eBook 종합]



eBook에서부터 확산된
<불편한 편의점> 인기

2022년 한국문학은 K콘텐츠의 인기와 함께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OTT 콘텐츠로의 급부상, 국제 문학상 후보 선정 및 수상으로 탄력을 받으며 한국문학의 영변역사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단연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이민진의 '파친코(Pachinko)'가 있다.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양서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미셀 자우너의 <H마트에서 울다(Crying in H Mart)>가 눈에 띄었고, 맨부커 인터내셔널 후보작으로 선정된 정보라의 <저주토끼(Cursed Bunny)>, 김주혜의 <작은 땅의 야수들(Beasts of a Little Land)>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국내 인기 작가인 조남주, 한강, 신경숙의 새로운 영문 번역판도 출간을 앞두고 있어 한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한 도서의 인기는 2023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는 이슈 원작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의 활발한 공개와 소확행, 레트로 열풍과 함께 인기 캐릭터를 활용한 스티커북 유행 등 다양한 콘텐츠가 눈길을 끌었다.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잘 팔리며 '역주행 신드롬'으로 화제가 된 이치조 미사키의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가 일서 1위를 차지했다. 폭발적인 인기로 힘입어 일본영화까지 제작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어 더욱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애니메이션 강국'의 면모도 돋보였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애니 <스즈메의 문단속>의 일본원서가 영화 개봉보다 앞서 출간되면서 관심이 두드러졌다. 캐릭터 강국인 일본의 스티커북 인기가 급상승하여 <모여봐요 동물의 숲 스티커북>, <치이카와 스티커북>, <산리오 반짝반짝 캐릭터 스티커북> 등이 베스트셀러 상위권 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무궁무진한 일본의 '콘텐츠'가 내년에는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Book 부문에서도 김호연의 <불편한 편의점>이 1위를 차지했다. 전자책 콘텐츠에서부터 먼저 인기를 끌면서 단행본으로 인기가 확장된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 시기에 위로를 건네는 힐링소설로 관심을 받아 단행본과 eBook 콘텐츠가 나란히 종합 1위에 올랐다. 소설 분야에서는 작가들의 파워가 돋보이며 지난 해보다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책과 드라마 모두 사랑을 받은 <파친코>나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집필한 <작은 땅의 야수들>과 같이 한국 근현대사와 관련된 소설이 사랑을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 코로나19 완화 이후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면서 <역행자>,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같은 자기계발 분야 도서가 순위에 오른 것도 눈에 띄었다.

[eBook 로맨스/BL]



**장르 소설 IP 판권 전쟁,
BL에 대한 대중성 강화**

드라마화로 인해 원작 콘텐츠가 역주행하는 법칙은 올해도 이어졌다. OTT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힘쓰면서 원작 콘텐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많은 콘텐츠들이 드라마와 영화 시장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와 플랫폼들도 독자적 IP 발굴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소설에서 웹툰, 드라마, 영화까지 <시맨틱 에러>가 큰 인기몰이를 하며 BL 콘텐츠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BL 분야의 성장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BL소설 사이트 연재에서 상업 작가로의 데뷔가 활발히 이루어져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통한 신장이 기대된다.

[eBook 판타지/무협]



**강력한 신인들의 등장,
속편 출시의 힘**

지난해 스테디셀러 콘텐츠가 상위권에 올랐는데, 올해는 신작들이 기존 베스트셀러 콘텐츠를 밀어내며 분야 30위 중 27종을 올해 출간한 신규 콘텐츠가 차지했다. 특히, 특정한 컨셉보다는 다양한 설정(회귀, 귀환, 재능, 의학)들이 골고루 사랑받으면서, 판타지/무협 분야 콘텐츠가 전체적으로 질적 향상을 이루는 한 해였다. 반면에 라이트노벨 콘텐츠는 <무직전생>, <전생했더니 슬라임...>, <오버로드> 등 기존 베스트셀러 시리즈들의 신간이 출시된 한 해였다. 새로운 시리즈 출간 효과로 분야 1위에 단숨에 오를 만큼 인기 시리즈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

[eBook sam]



**영화 팬덤이 구독서비스에도
영향**

상반기 인기 영화 '해어질 결심'이 마침내 연간 1위에 올랐다. 영화에 대한 관심은 각본집으로도 이어져 1위를 기록했고, sam에서는 최근 출간된 스토리보드북까지 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sam베이직은 물론 오디오북, 동영상, 학술논문까지 이용 가능한 'sam프리미엄' 서비스로 개편으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가 순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연말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배송라운지 프로모션으로 기존 종이책만 이용하던 독자들이 eBook구독서비스 sam을 경험하고 가입하면서 2022년에 출간된 신간이 베스트에 18권이나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